

유아교육과 재학생의 교육실습 실태 분석

Analysis of Teaching Practice Field of Cur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송주승(Song, Ju Seung)*, 정혜명(Choung, Hye Myoung)**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에 소재하고 있는 3년제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강서구, 인천광역시, 부천, 일산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72군데에서 이루어진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실습현황과 교육환경을 알아보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생들의 실습지도 현황과 교사들의 근무시간, 급여, 유아교사와 기관장의 여성 편중화 현상 등에 대해 4주간의 교육실습 경험을 가진 예비교사들의 객관적 견해와 현황파악을 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습지도 현황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4주간의 현장실습은 유아교사를 지망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실습생들은 유아교사로서 수업을 할 때 자신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은 음악, 미술, 손유희 등의 실기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남자교사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실습기관의 실습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능력있는 유아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과 현장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교육실습, 유아교육기관, 유아교육현장

* 제 1저자 : 김포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 김포대학 멀티미디어과 조교수, myoung@kimpo.ac.kr

I. 서론

유아교육과에서 실행되고 있는 4주간의 실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이론과 실습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교직과목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경험해 보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실습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볼 수 있도록 관찰에서부터 참가 그리고 실제지도에 이르기까지 교사로서의 경험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마지막 4주째에는 실습생이 하루나 이틀 동안 혼자 힘으로 하루 일과진행에 대한 교사의 모든 임무를 수행해보는 실제적 경험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습기간 동안 관찰과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예비교사인 실습생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오영희, 이성희,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강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또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급을 운영해 봄으로 학습지도 능력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교육현장의 실제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습생들은 실습기간동안 교사의 역할과 교수법, 교사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유아 개개인의 관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분위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찰자가 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교육현장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에 따라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의 양적 팽창의 시기를 지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측면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은 더욱 다양해진 역할과 업무를 보다 향상된 질로써 실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직에 머무르고 있는 교사들의 교직생활의 질을 재고해 봄으로써 교육의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백은주, 2007). 근무지의 교육환경과 교직생활의 만족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료교사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원만하

지 못한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들과 원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 교사들의 제한된 의사결정, 그리고 낮은 경제적 처우 등은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여 교사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동료교사들 간의 불만과 갈등은 교직생활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떠나게 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의 질과 효과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사들은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고갈이 심화되고 만성적 피로가 나타나고 성취감이 저하된다고 하며(김용미, 2003). 또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원장이 교사를 지원해주고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장려하는 건강한 조직풍토에서 높은 교사 효능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이분려, 1998).

교사들은 자신들의 복지문제, 즉 봉급문제나 업무분담에 대한 부당한 차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심각하며 그로 인해 교사들 간의 불만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연평균 18%이상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전일우, 2003).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재직 교사들의 직무에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소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안선희, 김지은, 2007).

우리나라에서는 여교사가 다수인 유아교육 분야의 현상에 대해 1970년대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부터 초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학생들의 여성화, 학생생활지도, 학생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교직 여성화에 대한 연구 및 남학생을 교사교육과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김용숙, 1987; 동아일보, 1996; 정찬익 1992). 유아 남교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설하는 주장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과 양성적 성역할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여성 편중화 현상으로 인해 남아의 여성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남자교사가 필요하다(조경자, 이현숙, 2004). 그러나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에 여교사가 대부분이며 남자교사들은 찾아보기 힘든 원인은 유아교육은 여성의 분야라는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실습을 받았던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시각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교육현장 상황에서 유아 남자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견해,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또 현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아교육과에서의 남학생 선발에 대한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유아교육 분야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부를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교사들의 근무시간과 처우 등의 복지와 그 밖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교사들의 복지개선과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유아교육기관의 실습지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한 K 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학생들이 4주 동안 실습한 실습장소로 하였다. 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자기식(自記式) 면접 방법으로 주어진 설문지를 기입하게 한 후 회수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72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유아교육기관의 일반적인 환경에 관한 문항,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항, 교육에 필요한 자료인 교구와 관련된 문항, 남자교사들과 관련된 문항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며 문항 수는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습지의 일반적인 환경 관련 7 문항
- 실습지의 교육프로그램 관련 8 문항
- 교육에 필요한 자료인 교구 및 필요 경비 관련 6 문항
- 교사들의 처우 및 교사들 간의 분위기 관련 4 문항
- 남자교사 관련 8 문항

본 논문의 자료는 SPSS(Statistic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부분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실습지의 일반적인 환경

1) 실습 교육기관의 유형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실습을 위하여 갔던 실습기관을 분류해 보면 국공립시설이 28군데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반 유치원으로 25군데 34.7%로 전체 중 73.6%가 독립적인 유아교육기관이었다. 나머지는 17군데 23.6%가 민간보육시설, 2군데 2.8%가 직장보육시설이었다.

<표 1> 실습기관의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치원	25	34.7	34.7
국공립보육시설	28	38.9	73.6
민간보육시설	17	23.6	97.2
직장보육시설	2	2.8	100.0
합계	72	100.0	

2) 평균 원아 수, 교사 수, 교사1인당 원아 수

72군데 유아교육기관의 원아 수는 최소 22명에서부터 200명까지였고 평균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하고 있는 평균 교사 수는 가장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3명이었고 가장 많이 근무하는 기관은 17명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었고 평균 인원수는 9명 이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원아 수는 최소 3.9명에서 최대 30명까지로 평균 12.5명으로 나타났다.

<표 2> 평균 원아 수, 교사 수 및 교사 1인당 원아 수

구분	조사기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원아수	72	22	200	109.17	55.39
평균 교사수	72	3	17	9.17	4.05
교사 1인당 원아수	72	3.9	30	12.5	

3) 출퇴근시간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50군데 즉 69.4%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관도 12기관 16.7%, 10기관 13.9%로 모두

2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과에서 실습지로 선택한 실습기관들이 국. 공립기관이 대부분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 공립기관에서는 대체로 출퇴근 시간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사립기관에서는 원의 행사계획 일정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퇴근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립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사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불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출퇴근 시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대부분 지켜졌다	50	69.4	69.4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12	16.7	86.1
일주에 1-2번은 지켜지지 않았다	10	13.9	100.0
합계	72	100.0	

4) 종일반 유무

실습기관의 91.7%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일반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경에서 오후 5시에서 7시30분까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다른 직장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표 4> 실습지의 종일반 운영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었다	66	91.7	91.7
없었다	6	8.3	100.0
합계	72	100.0	

5) 기관장 성별

실습교육기관의 기관장은 80.6%가 여성으로 남성 기관장 19.4%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5> 실습지 기관장의 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남자	14	19.4	19.4
여자	58	80.6	100.0
합계	72	100.0	

2. 실습지의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항

1) 수업시작시기

4주의 실습기간 중 두 번째 주부터 실습생에게 수업을 맡긴 기관이 40군데 55.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세 번째 주부터 수업을 맡긴 기관은 20군데 27.8%로 나타났고 첫 주부터 수업을 맡긴 기관은 10군데 13.9%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주에 가서 맡긴 기관은 2군데 2.8%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첫 주부터 실습생에게 수업을 맡기 기관은 교사의 수가 4명 이하인 곳, 또는 교사 한명이 담당한 유아의 수가 40명 이상인 기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실습생에게 너무 빠르게 수업을 맡길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네 번째 주에 가서 실습생에게 수업을 맡긴 기관은 원아 수 53명에 교사수가 9명이 기관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아의 수가 많은 반면에 교사의 수가 적은 기관은 실습생의 관찰과 참여, 실무실습의 교육적인 단계를 거쳐 실습 지도를 체계적으로 충실히 하려는 의지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사정을 실습생으로 충당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6〉 수업을 시작한 시기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첫주부터	10	13.9	13.9
두번째주부터	40	55.6	69.4
세번째주부터	20	27.8	97.2
네번째주부터	2	2.8	100.0
합계	72	100.0	

2) 지도교사의 지도

실습기관에서 지도교사로부터 호의적이며 좋은 지도를 받았으며 배울 점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은 77.8%로 대부분의 학생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습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도교사들이 실습생들의 실습일지 작성을 매일 점검해 주고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지도해 주었다고 답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7〉 실습지 교사의 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배울 점이 많다	56	77.8	77.8
배울점이 별로 없다	4	5.6	83.3
마음고생 많고 그저 그렇다	12	16.7	100.0
합계	72	100.0	

3) 부족한 부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습을 끝낸 후에 실습생 본인이 유아교사로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은 86.1%가 실기부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교교육이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음악, 미술, 손유희 등 실습위주의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피아노, 리듬악기, 장구, 단소 등의 국악기와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손유희 등의 실기능력은 아이들과의 노래지도나 음악활동 외에도 정리정돈, 간식지도 등 아이들과의 상호작용과 주의집중을 위해 날마다 수시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교육활동과의 연결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실습생들은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실습과목에 대해 응시자 72명 중 62명인 86.1%가 부족감을 느낀다고 답변한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표 8> 유아교사로서 부족한 부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론적인 배경	10	13.9	13.9
실기부분	62	86.1	100.0
합계	72	100.0	

4) 연간 견학횟수

실습기관의 연간 견학횟수는 3회 미만이 22군데로 30.6%로 가장 많은 반면 연간 견학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13회 이상이 13군데로 18.1%로 이는 한 달에 1회 이상이므로 교사들의 부담이 많아 보인다.

<표 9> 실습지의 연간 견학횟수

연간 횟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3회 미만	22	30.6	30.6
3 - 6회	21	29.1	59.7
7 - 9회	2	2.8	62.5
10 -12회	14	19.4	81.9
13회 이상	13	18.1	100.0
합계	72	100.0	

5) 연간 부모참여 수업횟수

실습기관의 연간 부모참여 수업횟수는 견학횟수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일년에 1-2회 93.1%로 나타났다.

<표 10> 연간 부모가 참여하는 수업횟수

참여수업횟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2 회	67	93.1	93.1
3 - 4 회	1	1.3	94.4
9 회 이상	4	5.6	100.0
합계	72	100.0	

6) 영어 교육 프로그램 유무

실습교육기관의 72.2%가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 및 학생들은 영어수업에 관한 심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었다	52	72.2	72.2
없었다	20	27.8	100.0
합계	72	100.0	

7) 24시간제의 문제점

유아교육기관이 24시간제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한 설문에서는 52.8%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교육시간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유아들에 대한 교사들의 사랑과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설문들을 보면 교육과정에 관한 연간 계획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5%이었으나 교육과정표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72.5%로 나타났고 교육시간이외에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31%인 것을 보면 많은 경우 임시수업계획에 맞추어야 하는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적인 활동 즉 이론수업과 동적인 활동 즉 실기수업의 비율을 보면 5: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업인 견학 횟수가 1년에 평균 5번 이상인 기관이 27.5%, 10번 이상인 기관이 35%로 나타났고 부모참여 수업도 65%의 기관에서, 재롱잔치도 82.5%의 기관에서 1년에 1번 이상 꼭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수업 실시 후에는 67.5%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 과정을 꼭 거친다고 응답했다.

<표 12> 24시간제의 문제점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안전	14	19.4	19.4
교육프로그램	38	52.8	72.2
교사들의 사랑과 관심	20	27.8	100.0
합계	72	100.0	

3. 교구 및 경비관련 사항

1) 실습기간 중 만든 교구 수

실습기간 4주 동안에 만들어서 제출한 교구수를 보면 한주에 약 1개씩의 교구를 만든 기관이 32군데 44.4%로 나타났고 2주에 약1개 정도를 만들어서 제출한 기관은 22군데 30.6%로 나타났고 7개 이상의 교구를 만들어 제출한 기관도 12군데 16.7%로 나타났다.

<표 13> 실습기간 중 만든 교구 수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2개	22	30.6	30.6
3 - 4개	32	44.4	75.0
5 - 6개	6	8.3	83.4
7개 이상	12	16.7	100.0
합계	72	100.0	

2) 제출한 교구 수

앞에서 실습생들이 만들어서 제출한 교구 수에 관하여 실습생들이 느끼는 견해는 너무 많다가 42군데 58.3%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교구 제작에 커다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제출한 교구 수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너무 많다	42	58.3	58.3
적당하다	22	30.6	88.9
적은편이다	8	11.1	100.0
합계	72	100.0	

3) 교구제작 경비조달

더욱이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제출한 교구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자비로 충당했다고 응답한 실습생이 50군데로 69.4%로 나타났다. 이는 교구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무척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 교구 제작을 위한 경비조달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비로 충당	50	69.4	69.4
실습기관에서 제공	22	30.6	100.0
합계	72	100.0	

4) 제작경비

교구제작을 위하여 사용한 경비 현황을 보면 3만원 이내가 27.8%,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13.9%,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11.1%로 전체 중에서 52.9%가 7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에 제출하여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교구제작을 위해 제작비가 실습생의 부담으로 모두 전가되는 것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인다.

<표 16> 교구 제작을 위한 경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3만원미만	20	27.8	27.8
3 만원이상 - 5 만원미만	10	13.9	41.7
5 만원이상 - 7 만원미만	8	11.1	52.8
7 만원이상 - 10 만원미만	6	8.3	61.1
10 만원이상	28	38.9	100.0
합계	72	100.0	

5) 경비지출 정도

교구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견해는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4.4%이고 적당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3.3%로 나타났고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22.2%로 나타났다.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에 제공하는 실습비 외에 교구제작을 위해 실습생의 부담으로 별도 지출되고 있으며 실습기관에 따라 교구제작 비용이 크게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은 향후에 실습기관과 학교의 추가협의를, 혹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습생들이 수업진행을 위한 교구제작을 할 경우에 되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응용하여 재활용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와 실습기관은 지침과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17> 교구 제작을 위한 경비 지출의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많이 지출	32	44.4	44.4
적당하다	24	33.3	77.8
너무 많이 지출	16	22.2	100.0
합계	72	100.0	

4. 처우 및 교사들 간의 분위기 관련 사항

1) 교사들 간의 분위기

실습생들 눈에 비친 교사들 간의 분위기는 대부분 매우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한 학생이 72.2%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실습했던 실습기관에 불만과 갈등이 있어보였다고 답변을 한 실습생들은 설령, 급여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교사들 간에, 혹은 교사들과 원장 간에 불만과 갈등이 있다고 느낀 실습기관으로의 취업은 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점은 교사들의 급여수준이 높더라도 근무지의 분위기가 화목하고 협조적이 아니라면 취업 기피 대상지가 된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표 18> 실습지 교사들 간의 분위기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교사들 간에 매우 협조적 이었다	52	72.2	72.2
불만과 갈등이 있어 보였다	20	27.8	100.0
합계	72	100.0	

2) 교사들 간의 불만갈등의 원인

실습기관의 교사들 사이에 갈등과 불만의 원인에 관한 설문에는 가장 큰 원인으로 47.2%가 봉급문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33.3%가 업무문제에 대한 차별이라고 응답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견은 19.4%로 나타났다. 이것은 갈등요인이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그 외의 처우 문제에 더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급여문제에 관한 설문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응답률이 저조한 편이었고 설문에 응답한 경우만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초임교사의 급여수준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에 관계없이 평균 9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경력 2-3년차인 교사의 급여수준은 평균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경력을 비슷하게 인정받아 동일한 호봉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급여차이가 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담임수당, 교직수당, 주임수당 등의 본봉 외의 수당에 원인이 있었다.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개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임수당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교직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었다.

<표 19> 교사들 간의 불만 갈등의 원인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봉급문제	34	47.2	47.2
업무문제에 대한 차별	24	33.3	80.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견	14	19.4	100.0
합계	72	100.0	

5. 남자교사 관련 사항

1) 남자교사 유무

유아교육기관의 남자교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는 실습교육기관 중 남자교사가 있는 교육기관이 겨우 8곳으로 11.1%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은 현장에서 남자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20> 남자교사의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다	64	88.9	88.9
있다	8	11.1	100.0
합계	72	100.0	

2) 남자교사의 필요성

현재 남자교사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은 남자교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교사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설문에서는 유아체육관련 활동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특기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남자교사를 기피하는 경우에 그 이유는 성폭행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으며 특별히 기대하는 역할은 신체발달 도모 차원에서 시간제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던는 이나미(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표 21> 남자교사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필요하다	42	58.3	58.3
필요하지 않다	30	41.7	100.0
합계	72	100.0	

3)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들에 관한 설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섬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에서 남성이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7.8%로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5%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와 남자교사 간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5.6%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유아와의 문제보다는 기존의 남자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

<표 22> 부정적인 견해의 원인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18	25.0	25.0
남성보다 여성이 섬세하다라는 인식	30	41.7	66.7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에서 남성이 어렵다	20	27.8	94.4
유아와 교사간의 관계에서 남성이 어렵다	4	5.6	100.0
합계	72	100.0	

4) 남학생 선발에 대한 견해

유아교육과에서 남학생을 선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7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남자교사의 필요성이 58.3%가 넘는 것으로 보아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여자교사와 남자교사의 역할분담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에 모델의 필요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표 23> 남학생 선발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긍정적이다	56	77.8	77.8
부정적이다	16	22.2	100.0
합계	72	100.0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이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기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습을 통하여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습하면서 느낀 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72군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93.6%가 국공립시

설 이상이었고 교사 1인당 책임지는 원아수도 평균 12.5명으로 환경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장소들이었으나 실습기간 중 교구 관련하여서는 교구를 실습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부담이 많았고 교구제작을 위한 경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로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은 특히 실기부분이라고 86.1%의 학생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서 실기부분에 보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년간 견학 횟수는 59.7%가 6회 정도로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 유아들의 현장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리 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유아교사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참여 수업 횟수는 93.1%가 2회로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사들의 퇴근시간과 관계되는 종일반은 실습기관의 91.7%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종일반 운영 시 유아교사들에 처우개선은 필요해 보이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 및 대안도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

유아교사들의 처우 및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봉급문제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 다음이 업무문제에 대한 차별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교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에 비하여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생각과 유아교육기관들의 치열한 실적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좀 더 의식 있고 기본이 충실한 유아교사들이 많아져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58.3%는 남자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유아교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 관념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는 섬세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여 남자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하여 남자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아직은 남아있으나 업무의 역할 분담 뿐 아니라 유아들에게 올바른 성역할의 본보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자교사의 역할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에 남학생의 입학에 적극 권장하여 올바른 의식을 가진 남자교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후에는 남자교사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실습지로 선택된 기관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었으므로 환경부분 즉 교육기관의 시설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크게 지적할 것은 없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 즉 교구제작에 관한 문제, 교사들의 처우문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 학교에서의 실기와 관련한 준비문제, 남자교사들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보강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용미. (2003). 유아교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34, 111-127.
- 김용숙. (1987). 교직의 여성화에 문제 있다. 대학교육, 27(5), 108-112.
- 동아일보. (1996. 5. 16). 사설: 남성교사 적어 고민.
- 백은주. (2007). 유치원교사의 교직생활유형에 따른 배경요인 및 사고양식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80-281.
- 오영희, 이성희. (199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현장관찰 및 참여. 서울: 양서원.
- 이나미. (2006).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분려. (1998).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일우. (2003).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의도 원인 및 이직계획시기와 직무태도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7(4), 39-52.
- 정찬익. (1992). 가속되는 교직의 여성화 현상과 전망. 새교육, 92(4월호), 28.
- 조경자, 이현숙. (2004). 남자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육과 여학생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4(6), 4-47.
- 안선희, 김지은. (2007) 영아 및 유아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근무여건,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47-164.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eaching practice of students attending a three-yea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urse in K City, Gyeonggi Province, as well 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of 72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where they received field training and which were located in Gangseo-gu, Seoul, Incheon Metropolitan City, Bucheon, and Ilsan. After four weeks of teaching practice, those prospective teachers were surveyed for their objective opinions and current state regarding the practice guidance for students, teachers' working hours and wages, and female dominance in number among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head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ose data were collected to understand the oper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current teach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ent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said the four-week teaching practice was very helpful for them to understand the field and thus had positive receptions of it. Most of the prospective teachers felt the heaviest burden and experienced the biggest shortcomings in practical skills such as music, art, and hand play during class. They also felt a partial need for male counterparts. Those findings will help prospective teachers understand the field further before going out on the field and the teaching bodies have specific ideas about what kind of guidance is provided by kindergartens or child care centers. In addition, they will hopefully serve as basic data to form organic connections betwee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field to produce more tal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Key Words: teaching practice, child care cen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